

〈일반논문〉

7세기 초 신라의 對隋 군사외교에 대한 재검토 - 圓光 乞師表의 사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

윤 경 진 *

〈목차〉

- I. 머리말
- II. 신라의 對隋 請兵 기사 의문점
- III. 『古本殊異傳』 수록 乞師表 기사 분석
- IV. 乞師表 사적의 改作과 『三國史記』의 편집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圓光의 乞師表 사적이 후대에 가공된 것이며, 신라의 對隋 請兵 또한 실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걸사표를 출발점으로 하는 7세기 신라의 대중국 군사외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의 첫걸음이 된다.

신라의 대수 청병은 『隋書』에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도 청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원광의 걸사표는 본래 그의 儒學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 對唐 청병과 強首의 사적을 모티브로 가공한 것이며, 그의 활동 시기에 맞추어 對隋 청병으로 정리되었다.

그 원전인 신라의 『殊異傳』은 고려에서 金陟明, 朴寅亮 등에 의해 改作 내지 潤文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교 계율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그의 답변 내용이 생성되어 추가되었다. 『삼국사기』는 백제의 청병 사적에 맞추어 청병과 수 양제의 허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락을 608년과 611년에 나누어 넣었는데, 608년은 607년의 편집 오류로 파악된다.

□ 주제어

圓光, 乞師表, 殊異傳, 金陟明, 朴寅亮, 強首

I. 머리말

7세기 중반 신라는 唐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공멸하였고, 그 결과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삼국의 '통일'로 설명되며, 현대적 관점에서는 '민족의 통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당이 고구려 舊地를 차지함으로써 그 평가에는 늘 '불완전'하다는 한계가 따라다닌다. 이로 인해 당시 전쟁의 결과를 신라의 '통일'이 아니라 백제 병합으로 제한해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전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논점으로 부각된 것이 대중국 외교이다. 곧 중국과의 능동적 외교를 통해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적 측면에서 花郎이 부각된 것과 함께 외교적 측면에서 신라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표가 되었고, 이를 통해 고구려 舊地를 상실했다는 한계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제공하였다. 종래 삼국전쟁기 동아시아 역관계를 隋·唐과 신라를 연결하는 동서세력과 고구려와 백제를 축으로 突厥과 倭로 연장되는 남북세력의 대립이라는 구

도로 설명한 것은 그 예이다.¹⁾ 여기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連和하여 신라를 압박하였고 신라는 이에 맞서 隋·唐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는 이해가 깔려 있다. 신라의 대중국 외교는 처음부터 백제와 고구려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양국 공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麗濟連和’ 및 그에 대응하는 신라의 대중국 외교는 『삼국사기』 및 중국 사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여제연화’는 신라의 외교적 목적에서 가공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래,²⁾ 비판적 논의가 이어졌다. 백제의 외교를 다루는 일련의 연구에서 이 설이 재차 부정되었고,³⁾ 최근에는 고구려의 입장에 주목하거나⁴⁾ 唐의 인식을 검토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⁵⁾ 전반적으로 ‘여제연화’의 실체를 부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삼국전쟁기 대중국 외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안으로 신라의 對隋 請兵 문제를 들 수 있다. 신라의 청병은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여제연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여제연화’를 부정하면 응당 대수 청병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⁶⁾

1)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2)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 1982;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2001.

3)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46, 2002; 박운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4) 방용철, 「麗·濟連和說의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62, 2016.

5)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 인식」, 『史學研究』 141, 2021.

6) 여기서 외교 기사의 자료적 성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외교는 당사국들의 입장이 교차하면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과장·왜곡된 주장이 표방될 수 있고, 한편으로 후대의 시각에서 재해석된 자료가 史書 등에 채용될 수 있다. 이는 ‘여제연화’는 물론 신라의 대수 청병에도 적용된다. 응당 관련 자료들이 당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왜곡된 시선이나 후대의 평가에 의해 형성 또는 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단서는 圓光의 乞師表이다. 『삼국사기』 기사에 따르면 원광은 608년 진평왕의 명으로 수에 고구려 정벌을 청하는 표를 지어 바쳤고, 수는 611년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구려 정벌을 천명하고 이듬해 원정을 단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곧 원광의 결사표는 7세기 신라의 대수 군사외교를 설명하는 실체적 근거인 것이다. ‘여제연화’를 비판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데에는 바로 결사표에 대한 이해가 고착된 탓이 커 보인다.

그런데 원광의 결사표는 자료적·내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본문에서 상론하겠지만, 무엇보다 신라의 결사표 내지 청병 사적이 『隋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걸린다. 이는 같은 시기 백제의 군사외교와 수의 대응이 史書에 고스란히 실린 것과 대비된다.⁷⁾ 당시 수는 백제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백제 또한 612년 원정에서 군사 행동을 보였다. 이는 신라의 요청으로 황제가 원정을 단행했다는 설명과 충돌한다. 당시 자료에 나타나는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가 청병을 필요로 할 정도의 갈등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원광의 결사표 기사 자체도 재고를 요한다. 이 사적은 『三國遺事』에 인용된 『古本殊異傳』에 그 원형이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연은 ‘隋’를 ‘唐’으로 고쳐 이해하고 있어 사적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또한 함께 채록된 神과의 대화가 허구라는 점은 결사표의 사실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본수이전』의 성격과 수록 내용의 맥락, 그리고 『삼국사기』 기사와의 관계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원광의 결사표를 포함한 신라의 대수 청

형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7) 백제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연구 현황은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박운선, 「백제와 중국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百濟文化』 45, 2011; 박운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百濟學報』 13, 2015.

병이 실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만큼 사적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결사표 사적을 매개로 7세기 초 신라의 대수 군사외교의 실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사표를 포함한 청병 기사 의문점을 하나 하나 짚어보고, 이어 결사표 사적의 성격을 그 原典과 관련하여 따져볼 것이다. 여기에는 『삼국사기』의 의도적 편집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원광의 결사표 찬술 및 신라의 대수 청병은 후대에 가공된 사적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삼국의 대중국 외교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신라의 對隋 講兵 기사의 의문점

신라의 대수 청병 사적은 608년 원광의 결사표 찬술과 611년 청병에 대한 수 양제의 허락으로 구성된다. 이 사적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은 다음 두 가지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는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의 청병 사실이 『隋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삼국사기』의 외교 기사가 중국 사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백제의 군사외교가 『수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단순히 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신라의 청병 사적은 신라의 요청을 수 양제가 수락함으로써 고구려 원정이 실행되었다는 맥락이다. 실제 그러한 함의를 가진 청병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수서』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같은 시기 백제의 청병과 황제의 수락

이 있었던 만큼, 신라의 청병이 실재했다면 이를 덧붙일 수 있다. 외교 기사에는 여러 나라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수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실성에 대한 의문을 유도한다.

여기서 『삼국사기』 외교 기사의 전체적인 양상 및 개별 기사의 성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에 실린 대중국 사행 기사는 대개 사신을 보내 조공하거나 방물을 진상했다는 단편적 내용이며, 간혹 사신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대개 단편적으로 정리된 중국 사서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일괄 정리된 국내 자료를 참고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사신의 구체적인 활동 상황이나 대화 등을 담은 기사는 이와는 계통이 다른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다. 곧 『삼국사기』의 외교 기사는 여러 자료를 모아 구성한 것이다.⁸⁾ 이 때 『수서』에 보이지 않고 일반 사행 기사와도 다른 형태를 띤 신라의 청병 사적은 국내 전승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신라 내부의 인식이 투영되거나 후대에 생성된 자료를 채록한 것일 수 있고, 그만큼 가공된 내용일 여지를 가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백제 무왕의 요청을 수 양제가 적극 수용하여 사신까지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⁹⁾ 실제 원정이 단행되자 백제도 일정한 군사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다.¹⁰⁾ 이것은 수 양제가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정을 단행했다는 신라본기 기사와 충돌한다. 『수서』에 나타난 양제의 행보를 인정한다면, 이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신라본기 기사의 내용은

8) 간혹 통상적 사행 기사 뒤에 사신의 활동이나 중국의 대응 등이 서술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래 하나의 자료에 있던 것이 아니라 대개 서로 다른 자료에서 채록하여 연결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활용에는 자료의 계통 차이와 내용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9)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12년 2월, “遣使入隋朝貢 隋煬帝將征高句麗 王使國智牟 入講軍期 帝悅 厚加賞錫 遣尚書起部郎席律來 與王相謀”

10)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13년, “隋六軍度遼 王嚴兵於境 聲言助隋 實持兩端”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가 두 나라의 요청을 함께 받아 허락한 것이라면 『수서』에 두 나라가 함께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해당 기사는 전쟁 내용과 관련하여 “行兵事在高句麗紀”라고 처리하고 있다. 이는 당초 해당 원전에 전쟁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 원전에는 수 양제의 원정이 신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그와 연결된 원정 사적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를 실제 원정과 연결시키기 위해 해당 구문을 끼워 넣은 것이다.

결국 백제의 청병과 신라의 청병은 서로 다른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과 편집 상황을 볼 때 백제의 청병이 실제한 사적이며, 신라의 청병은 후대에 구성된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내용을 채용하여 역사상을 구성하기에 앞서 사실성부터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신라의 청병 사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신라의 대수 청병은 608년(진평 30) 圓光의 乞師表 찬술을 출발점으로 한다.

- 가) ① 왕이 고구려가 자주 영토를 침범하는 것을 우려하여 隋에 군대를 청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圓光에게 명하여 乞師表를 짓게 하였다. ② 원광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은 沙門이 할 일이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면서 대왕의 水草를 먹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지어서 바쳤다.¹¹⁾

11)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30年, “王患高句麗屢侵封場 欲請隋兵以征高句麗 命圓光修乞師表 光曰 求自存而滅他 非沙門之行也 貧道在大王之土地 食大王之水草 敢不惟命是從 乃述以聞”

원광의 결사표는 그의 행적 및 신라 중고기 불교의 국가관 등을 조망하는 준거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신라의 대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채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 이해와 달리 결사표 사적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내용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 발견된다.

여기서 먼저 전반적인 배경으로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수에 청병할 정도로 신라에게 위기였는가 하는 점부터 짚어보자. 중국 왕조에 대한 청병은 국가 존립의 위기를 타개하거나 원정에 편승하여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내포한다. 백제는 4세기부터 고구려와 계속 충돌하고 있었고 중국 왕조를 이용한 고구려 견제를 하나의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라는 백제처럼 중국 왕조를 통한 고구려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을까.

기록상 이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¹²⁾ 고구려는 앞서 603년(진평 25)에 신라의 北漢山城을 공격하였고,¹³⁾ 608년 2월에는 北境을 침범하여 8천 인을 포로로 잡아갔다.¹⁴⁾ 그리고 4월에는 牛鳴山城을 공격하였다.¹⁵⁾ 이러한 상황이 위 기사에서 “고구려가 자주 영토를 침범”한 내용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¹⁶⁾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신라 방면 공격은 자신의 고토를 되찾는 것을

12)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충돌과 관련된 세부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강중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 660년 이전 對高句麗戰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2004;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경계』 110, 2019.

13)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25년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1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30년 2월,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15)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30년 4월, “高句麗拔牛鳴山城”

16) 『삼국사기』의 편집으로 보면 北境과 牛鳴山城 공격은 결사표 찬술보다 뒤의 일이다. 따라서 실제 찬술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북한산성 공격이 유일하다.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¹⁷⁾ 溫達이 漢北之地의 수복을 천명하며 출정한 것은 그 예이다.¹⁸⁾ 신라로서는 한강 유역의 방어가 중요한 과제였고, 영토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신라는 604년 南川州를 폐지하고 北漢山州를 둔 것으로 나온다.¹⁹⁾ 앞서 신라는 568년 남천주를 두면서 한강 방면에서 일보 후퇴했는데, 7세기에 들어와 다시 州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629년 신라가 娘臂城(포천)을 공격하는 것도 이 흐름의 연장에 있다.²⁰⁾ 이 추이에 바탕을 두고 본다면, 『삼국사기』 기록은 고구려의 공격을 위주로 나타내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신라가 공세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²¹⁾ 고구려의 신라 공격은 신라의 계속적인 진출 시도를 막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구려가 607년 백제 松山城과 石頭城을 공격한 것은 고구려의 남방 정책에 신라와 백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구려에게는 수와 수에 청병하는 백제의 위협이 더 큰 문제였다.²²⁾ 백제의

17) 강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2004.

당시 고구려 영토의식의 남방 경계는 한강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1, 2020 참조.

18) 온달이 “漢北之地의 백성들이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영토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三國史記』 권45, 列傳5, 溫達, “惟新羅割我漢北之地爲郡縣 百姓痛恨 未嘗忘父母之國”).

1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26년 7월,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20)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4, 眞平王 51년 8월, “王遣大將龍春舒玄 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21) 이러한 신라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지만(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2019), 결사표나 대수 청병에 대해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22) 당시 고구려의 대남방정책은 隋와의 조공 책봉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수의 군사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세력권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대수관계(對隋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6,

대수 청병을 인지한 고구려가 보복 공격을 가했다는 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시사한다.²³⁾

당시 백제의 행보는 한강 이북의 고토를 수복하려는 지향에 입각한 것이라면,²⁴⁾ 신라의 북진은 일반적 의미의 영토 확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수의 고구려 원정을 유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²⁵⁾ 오히려 신라의 행보는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을 이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후 전개된 몇몇 상황도 신라의 대수 청병을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다음 기사를 보자.

- 나) ① 高祖가 海東 三國이 과거에 원한과 틈이 있어 서로 번갈아 攻伐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모두 번병이 되어 서로 화목에 힘쓰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 사신에게 원한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② (신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앞서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하자 (고구려가) 신라에 와서 구원을 청하므로 신라가 군대를 보내 백제국을 대파하니 이로 인해 원한이 생겼

2002, 29~32쪽). 이러한 관계성에서 본다면 고구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백제였던 만큼, 고구려의 행보가 신라의 청병을 유도할 여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23)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威德王 45년 9월, “王使長史王辯那入隋朝獻 王聞隋興遼東之役 遣使奉表 請爲軍道 (중략) 高句麗頗知其事 以兵侵掠國境”
- 24) 온조왕의 경계 획정 기사에 보이듯이 백제는 ‘패수=대동강’을 북방 경계로 간주하였고, 이는 부흥국가로서 백제 고토의 수복을 천명한 견훤이 “平壤의 누각에 활을 걸고 溟江의 물로 말을 먹이겠다”라고 언급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영토의식은 4세기 근초고왕대의 北征에서 수립된 것이다(윤경진, 「4세기 후반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과 영토의식 :치양성(雉壤城)·패수(溟水)에 대한 새로운 비정을 바탕으로」, 『韓國史研究』 193, 2021).
- 25) 644년 淵蓋蘇文은 화해를 종용하러 온 唐의 相里玄奘에게 수의 침입 때 신라가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진흥왕 때의 한강 진출을 가리키는 것이며, 수의 침공 때 신라가 고구려 방면으로 영토를 확장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백제와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영토 확장의 목적에서 청병을 도모했다는 이해도 성립하기 어렵다.

습니다. 매년 서로 攻伐하다 신라가 백제왕을 잡아 죽이니 원한이 이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⁶⁾

위 기사는 621년 당 고조가 신라 사신에게 삼국의 갈등과 상호 攻伐의 이유를 묻고 신라 사신이 답한 것이다. 여기서 신라 사신은 앞서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고구려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 백제를 대파한 일과 백제왕을 죽인 일을 언급하였다. 이 내용은 신라의 한강 진출과 백제 성왕의 전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고조는 ‘海東三國’의 갈등에 대해 물었는데 신라 사신의 답변에는 백제와 신라의 갈등을 말하면서 그 前史로서 백제와 고구려의 갈등을 언급하였다. 대수 청병을 유도하는 신라와 고구려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신라의 고구려 구원이 적시되었다. 원광의 걸사표는 성왕 전사 이후의 일이다. 그 사이에 대수 청병이 필요할 정도의 큰 갈등이 있었다면, 당 고조의 질문 취지에 비추어 신라 사신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주지하듯이 신라는 선덕여왕 때 大耶城 함락 후 백제에 보복하기 위해 고구려에 청병하였다. 백제의 대수 청병에 대한 보복으로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이루어진 맥락을 염두에 두면, 적어도 앞선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그러한 적대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신라의 일방적 인식으로 보이지만 앞서 고구려를 구원했다는 언급을 연결해 보면, 적어도 신라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수에 청병해야 할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²⁷⁾

26) 『舊唐書』 권199, 列傳149, 新羅,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蕃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27) 당시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인식이 적대적이지 않았음을 적시한 연구가 주목되

이번에는 결사표 기사의 형식적 문제를 짚어보자. 이 기사는 月이 명시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원광 관련 기사로는 589년(진평 11) 원광이 陳에 들어가 求法한 일²⁸⁾과 600년에 朝聘使 奈麻 諸文, 大舍 橫川과 함께 돌아온 일,²⁹⁾ 608년의 결사표 찬술, 613년의 皇龍寺 百高座 개최,³⁰⁾ 그리고 世俗五戒³¹⁾ 등이 있다.

이 중 열전에 수록된 세속오계를 논외로 할 때, 본기에 수록된 기사는 그의 환국 기사 외에는 모두 月이 명기되어 있다. 환국 기사 또한 당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사신들과 함께 온 것이어서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적다. 그런데 결사표 기사는 왕명에 관련된 것임에도 일화 형태로 정리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사가 동년 2월 기사보다 앞에 편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러 자료를 모아 시간 순으로 편집할 때, 연도만 파악된 기사는 해당 연도 말미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³²⁾ 결사표 기사 또한

지만(최호원, 「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7세기 전반까지 양국의 상호 인식」, 『史叢』 91, 2017, 103~106쪽), 이 문제를 대수 청병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가지는 않았다.

28)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11년 3월, “圓光法師入陳求法”

29)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22년, “高僧圓光隨朝聘使奈麻諸文大舍橫川還”

30)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30년 7월, “隋使王世儀至皇龍寺設百高座邀圓光等法師說經”

31) 『三國史記』 권45, 列傳5, 貴山

32) 『宣祖修正實錄』 凡例 중 “不得爲日記 只隨月記之 而月亦未詳 則當於年終書之”라고 한 것에서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에도 연도만 아는 기사를 해당 연도 말미에 수록한 예가 다수 보인다. 왕대만 파악될 경우에는 왕대 말미에 들어가기도 한다. 일례로 무열왕의 태종 시호를 둘러싼 논변은 신문왕 사망 기사 바로 앞에 들어가 있고, 이 때문에 신문왕 12년의 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왕대로만 파악된 기사를 왕대 말미에 넣음으로써 나타난 양상이다. 나아가 이것은 실재한 사적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윤경진, 「新羅 太宗(武烈王) 諡號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 : 原典에 대

608년의 일이라면 당연히 그 해 말미에 들어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특이하게 해당 연도 서두에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그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나 준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해당 기사의 편집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어떤 의도가 개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³³⁾

이것은 611년 기사와 연결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여기서 611년 기사를 음미해 보자.

다) 왕이 隋에 사신을 보내 表를 올려 군대를 청하니 수 양제가 허락하였다. 군대를 보낸 일은 高句麗紀에 있다.³⁴⁾

위의 기사는 신라의 요청을 수 양제가 수용하여 고구려 원정에 나선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이 기사 역시 月이 표시되지 않았으나 동년 10월 백제의 椴岑城 공격 기사 앞에 편집되어 있다. 이 또한 의도적 편집을 시사하지만, 걸사표와 달리 시점 비정의 준거는 존재한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이 기사의 뒤에 行兵에 대한 일을 언급한 것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예외적이어서 기사를 덧붙인 의도가 감지된다. 『삼국사기』에서 다른 본기로 연결한 사례로는 백제 멸망 후 665년에 이루어진 就利山 會盟과 관련하여 백제본기에서 “盟辭見新羅紀中”이라고 한 기사가

한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와實學』 51, 2013 참조.

33) 진평왕대의 상황이 청병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적시하고, 대수 청병은 고구려의 연이은 침입이 있은 후의 일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박윤선,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53, 2009, 269쪽, 주 23). 그러나 이후에도 고구려의 공격이 청병을 필요로 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자의 해석은 오히려 걸사표의 실체에 의문을 유도한다.

34)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眞平王 33년, “王遣使隋 奉表請師 隋煬帝許之 行兵事在高句麗紀”

있다.³⁵⁾ 그런데 이것은 신라본기의 것을 압축하여 기사를 구성하면서 회맹문 부분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611년 기사는 특정 기사를 축약한 것이 아니라 후속 상황을 연결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신라본기의 기사가 다른 원전을 채용하면서 이를 내용적으로 고구려본기의 것과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곧 수의 원정이 신라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본기에는 양제의 원정에 앞서 관련 기사로 다음이 보인다.

라) 煬帝가 詔를 내려 고구려를 토벌하도록 하였다.³⁶⁾

위 기사는 611년 2월의 것이다. 원정에 선행하는 조치로서 신라본기의 611년 기사에 조응하며 月이 표시되어 있다. 이 기사는 연대기 자료에서 온전히 채록된 것인데, 여기에 신라의 요청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고구려 정벌을 명한 양제의 詔書는 『隋書』에 大業 7년 2월 기사로 나오고 있고³⁷⁾ 『자치통감』도 동일하여 고구려본기 기사가 이를 준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본기에는 뒤이어 612년 정월 壬午 기사로 다시 양제가 내린 詔書가 수록되어 있는데,³⁸⁾ 『수서』에도 같은 年月日의 기사가 확인된다.³⁹⁾

여기서 수 양제가 고구려 침공을 천명한 사적은 중국 사서에 근거하여

35)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6, 麟德 2년

36)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2년 2월, “煬帝下詔 討高句麗”

37) 『隋書』 권3, 帝紀3, 煬帝上, 大業 7년 2월 壬午, “武有七德 先之以安民 政有六本 興之以教義 高麗高元 虧失藩禮 將欲問罪遼左 恢宣勝略 雖懷伐國 仍事省方 今往涿郡 巡撫民俗 其河北諸郡及山西山東年九十已上者 版授太守 八十者授縣令”

38)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년 정월 壬午

39) 『隋書』 권4, 帝紀4, 煬帝下, 大業 8년 정월 壬午

고구려본기에 들어간 것이고, 여기에는 신라의 청병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청병 사실이 언급된 신라본기 611년 기사는 이와 다른 자료에서 채록되면서 이 시점에 맞추어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자료를 통해 채록된 608년 결사표 기사와 611년 허락 기사는 당초 하나의 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611년은 청병 시점이 아니라 양제의 허락 시점이다. 허락 기사 뒤에 “行兵事在高句麗紀”라고 한 것은 양제의 허락이 고구려본기의 조서 반포와 연동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611년 기사 중 신라의 “奉表請師” 부분은 허락의 조건으로서 앞에 첨부된 것이며, 이는 608년의 결사표 찬술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내용 구성상 결사표 기사는 “奉表請師”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며, 이는 두 기사가 하나의 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이것이 두 시점의 기사로 나뉘어 정리된 것은 의도적 편집의 결과이다. 그 의도의 내용과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의문점들을 종합하면 원광의 결사표를 포함한 신라의 대수 청병은 실재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연대기 자료가 아닌 별도의 전승 자료를 통해 구성된 것이다. 특히 해당 사실이 『수서』에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같은 시기에 백제의 청병 외교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라의 청병은 후대의 인식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파악된다. 다음에는 해당 기사가 채록된 원전의 성격과 형성 배경 등을 통해 이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다.

40) 608년의 乞師表와 611년의 奉表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연결성과 더불어 모두 月을 알 수 없는 기사로서 첨입되고 있다는 점 등은 본래 하나의 기사였음을 시사한다. 실제 『삼국유사』 인용 『古本殊異傳』의 해당 기사를 보면 원광의 결사표로 인해 원정이 단행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Ⅲ. 『古本殊異傳』 수록 乞師表 기사의 분석

앞서 지적했듯이 신라의 대수 청병은 『수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당 초 걸사표 및 청병은 하나의 사적으로 정리되었던 것이며, 후대에 생성된 것을 『삼국사기』가 채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적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三國遺事』 「圓光西學」 항목에는 원광의 사적과 관련하여 여러 계통의 자료가 인용되고 있다. 먼저 唐의 『續高僧傳』 권13에 수록된 원광의 전기를 인용한 데 이어, 東京의 安逸戶長 貞孝의 집에 있던 『古本殊異傳』에 실린 「圓光法師傳」을 인용하였다. 후자에 걸사표와 대수 청병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이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⁴¹⁾

먼저 이해의 토대로서 일연이 인용한 『고본수이전』 수록 「원광법사전」의 내용 구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고본수이전』 수록 「원광법사전」의 내용 구성

	내용	원문
1	출신	法師 俗姓薛氏 王京人也
2	출가	初爲僧學佛法 年三十歲 思靜居修道 獨居三岐山
3	신과의 만남 1	後四年 有一比丘來 (중략) 神詳誘歸中國所行之計 法師依其言歸中國
4	중국 유학	留十一年 博通三藏 兼學儒術

41) 원광의 행적은 자료마다 서로 어긋나는 점이 많아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이 있다.

崔鉛植, 「圓光의 생애와 사상: 『三國遺事』 「圓光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新羅文化』 28, 2006; 이문기, 「圓光의 生涯 復原 試論」,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5	귀국	眞平王二十二年庚申〈三國史云 明年辛酉來〉師將理策東還 乃隨中國朝聘使還國
6	신과의 만남 2	法師欲謝神 至前往三岐山寺 (후략)
7	귀국 후 활동 1	法師始自中國來 本朝君臣敬重爲師 常講大乘經典
8	귀국 후 활동 2 (결사표)	此時 高麗百濟 常侵邊鄙 王甚患之 欲請兵於隋〈宜作唐〉請法師作乞兵表 皇帝見以三十萬兵親征高麗 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
9	입적과 장지	享年八十四入寂 葬明活城西

「원광법사전」 기사는 두 차례에 걸친 神과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며, 결사표 기사는 입적 앞 기사로 첨부되어 있다. 이 전기는 기본적으로 『고본수이전』의 한 항목이라는 점과 그의 출신부터 입적까지 정리한 점에 비추어 해당 항목 전체를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곧 그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출신과 입적을 틀로 삼아 그 사이에 있던 특별한 사적을 일화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일연은 원광의 성씨에 대해 唐·鄉의 두 전기에 차이가 있음을 적시하고 이를 모두 신는다고 밝혔고, 이어 金陟明의 「光師傳」에 寶壤의 사적이 混入되고 『海東高僧傳』이 이를 답습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변별하고 “한 글자도 가감하지 않고 두 전기의 글을 자세하게 실었다 [不加減一字 載二傳之文詳矣]”라고 밝혔다. 여기서 두 전기는 唐·鄉의 전기, 곧 『속고승전』과 『고본수이전』을 말한다. 실제 『속고승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에 비추어 『고본수이전』에 실린 내용 또한 원전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고본수이전』의 전기에서 원광은 중국에 유학한 뒤 600년(진평 22)에 還國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⁴²⁾ 결사표 찬술 시점은 밝혀져 있지 않다. 여

42) 『삼국유사』에는 “三國史云 明年辛酉來”라고 註記하였는데, 이는 진평왕 23년이 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진평왕 22년 기사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삼국사기』는 혹 『舊三國史』일 수도 있지만, 진평왕 23년 기사가 없다는 점에서 ‘二十

기서 해당 기사를 분석해 보자.

- 마) ① 法師가 처음 中國에서 돌아왔을 때, 本朝의 君臣이 존경하며 스승으로 삼으니 항상 大乘經典을 강론하였다. ② a. 이 때 고구려와 백제가 항상 변경을 침범하니 왕이 매우 걱정하여 隋<마땅히 唐이어야 한다>에 군대를 청하고자 법사에 乞兵表를 지을 것을 청하였다. 황제가 보고서 30만의 군사로 고구려를 親征하였다. b. 이로부터 법사가 儒術에도 능통하였음을 알게 되었다.⁴³⁾

여기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승려인 원광법사가 儒學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말하는 근거로 乞兵表(乞師表)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의 4번 항목을 보면 중국 유학의 결과로 그가 “三藏에 두루 통달하고 겸하여 儒術도 배웠다[博通三藏 兼學儒術]”는 내용이 있다. 위 인용문은 바로 이 내용에 조응한다.

그가 大乘經典을 강론했다는 것은 “博通三藏”의 사례가 된다. 그가 승려로서 불법을 공부하고 온 것이므로 포괄적 설명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결사표 찬술은 “兼學儒術”의 구체적인 사례인 셈이다.

『속고승전』에는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箋表啓書와 주고받는 國命이 모두 그의 가슴속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있다.⁴⁴⁾ 사실상 그가 외교 문서를 전담했다는 취지이다. 당시 한문을 해독하고 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승려였다. 따라서 원광이 환국 후 외교문서 작성에 기여했

二와 ‘二十三’에서 誤讀이나 刊本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여지도 있다.

43)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法師始自中國來 本朝君臣敬重爲師 常講大乘經典 此時 高麗百濟常侵邊鄙 王甚患之 欲請兵於隋<宜作唐> 請法師作乞兵表 皇帝見以三十萬兵親征高麗 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

44) 『續高僧傳』 권13, 釋圓光傳, “箋表啓書 往還國命 並出自胸襟”

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일연은 결사표 찬술 기사에서 ‘隋’를 ‘唐’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가 굳이 이를 적시한 것은 사적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일연은 무슨 근거에서 이러한 註記를 단 것일까. 황제의 고구려 親征은 당 태종의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수 양제의 원정 역시 친정이었다. 당시 동원된 군사가 30만 5천명으로 나와⁴⁵⁾ 30만이라는 표현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일연의 판단은 “高麗百濟 常侵邊鄙”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여제연화’에 의한 신라 침탈이라는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 신라가 ‘여제연화’를 제기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는 기사는 640년대부터 나타나며,⁴⁶⁾ 당의 고구려 원정에서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실제 671년 「答薛仁貴書」에 인용된 당 태종의 언급을 보면, 고구려 원정 이유로 “麗濟 양국의 신라 침탈”을 적시하고 있다.⁴⁷⁾ 고구려 원정 사유에 백제까지 넣어 신라 침탈을 말한 것은 『고본수이전』의 결사표 찬술 배경 설명과 동일한 구도이다. 일연은 이 부분에서 결사표가 당 태종의 원정 배경이 된 것이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해당 사적이 당초 對唐 請兵을 배경으로 구성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후술하듯이 『삼국사기』가 이 사적을 그대로 대수 청병으로 이

45) 『三國史記』 권44, 列傳4, 乙支文德, “初度遼 九軍三十萬五千人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人”

이 내용은 『隋書』 宇文述 열전에도 보인다(『隋書』 권61, 列傳26 宇文述). 또한 앞서 수 문제가 고구려 정벌을 명할 때 동원된 군사도 30만이었다(『隋書』 권2, 帝紀2, 高祖下, 開皇 18년 2월 乙巳, “以漢王諒爲行軍元帥 水陸三十萬 伐高麗”).

46) 『수서』에는 백제의 청병에 대해 “안으로 고구려와 通和했다”는 의혹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수서』를 편찬한 당 초기의 인식으로 판단된다. 백제의 대수 군사외교에 대해서는 別稿로 논할 것이다.

47)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1년 7월,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해하면서 침탈 주체를 고구려로 단일화한 것은 역으로 이러한 심증을 뒷받침한다.⁴⁸⁾

당초 『고본수이전』에 결사표 찬술 연도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청병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확인된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고본수이전』에는 결사표 작성 및 청병 시점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내용으로부터 시점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연은 신라의 청병 사적이 隋代가 아니라 唐代의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고본수이전』의 결사표 사적이 대당 청병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수대의 사적으로 변환된 것은 원광의 활동 시기를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원광의 생몰년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속고승전』은 貞觀 4년(630)에 99세로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본수이전』은 84세, 『삼국유사』는 80여세로 되어 있다. 『속고승전』의 시점은 원전의 建福 58년을 환산한 것인데, 실제 이 해는 정관 15년에 해당한다.⁴⁹⁾ 이 경우 몰년은 641년이 되어 당 태종이 고구려를 원정한 645년과 4년의 시차가 있다.⁵⁰⁾

48) 이와 함께 註記의 또다른 근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백제의 청병이다. 『수서』나 이를 토대로 구성된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을 보면 수 양제의 고구려 원정은 백제의 요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을 인지한 일연은 신라의 요청으로 수가 원정을 단행했다는 내용에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

49) 『속고승전』은 원광의 제자 圓安이 지은 전기를 토대로 하며, 여기에 그의 몰년이 建福 58년으로 되어 있었다. 『삼국사기』의 기사를 따를 때 건복 연호는 선덕여왕이 연호를 仁平으로 개정한 634년 이전까지만 사용되었으므로 50년이 하한이다. 그리고 건복 58년은 641년이며, 정관 15년에 해당한다. 일연이 14년으로 고쳐 이해한 것보다 1년의 오차가 있다.

50) 실제 원광의 몰년은 정관 4년으로 파악하고 당시 원광의 나이는 「원광법사전」의 것을 취하여 84세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문기, 「圓光의 生涯 復原 試論」, 2012, 37~44쪽). 그러나 『속고승전』의 환산은 원전의 신라 연호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일단 건복 58년을 준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연은 “又建福三十年癸酉(卽眞平王卽位三十五年也)”라고 한 구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건복 연호에 대해 명확히 인지

한편 『고본수이전』에 따르면 그는 30세에 입산 수도하다 4년 뒤에 비구를 만났고 2년 뒤 갈등을 빗다가 신을 만나 중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11년간 머무르다가 600년에 환국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그의 나이를 따져보면, 환국 당시 나이는 47세가 된다. 84세에 입적했으므로 그의 몰년은 637년이 된다. 그의 유학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몇 년을 추가한다면 그의 몰년이 641년 즈음이 된다. 나이는 다르지만 그의 몰년은 대체로 일치한다.⁵¹⁾

4년의 시차를 두고 결사표와 당의 고구려 침공을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그의 입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84세 내지 99세에 가까운 나이에 결사표를 담당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⁵²⁾ 613년 隋의 사신 王世儀가 왔을 때 원광이 講經한 사적을 고려할 때, 그의 외교문서 찬술도 주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환국 후 한참 활동할 시기를 감안하면 이 사적을 당 태종의 친정을 유도한 청병으로 구성하기 어렵다. 이에 결사표를 대수 청병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이처럼 원광의 결사표 사적이 구성되는 것은 그의 儒術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결사표 기사에 이어 “自此知法師旁通儒術也”라고 덧붙인 것에서 서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속고승전』에서 그가 ‘牋表啓書’와 ‘往還國命’을 전담했다고 한 내용의 구체적인 예가 된다. 결국 원광의 결사표는 그가 외교문서를 담당했다는 사적과 당의 고구려 원정을 배경으로 삼아 그의 유술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표로 만들어졌으며, 그의 활동 시기에 맞추기 위해 이를 대수 청병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고 있으므로 정관 연호로의 환산에서 나타난 1년의 오차는 실수라고 판단된다.

51) 최연식은 원광이 550년경에 출생하여 630~640년경에 입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최연식, 『圓光의 생애와 사상』, 1995, 13~18쪽).

52)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대당 청병이므로 대수 청병의 사적은 될 수 없다.

걸사표는 외교문서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실제 원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찬자의 역량을 부각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强首의 사례가 참고된다. 문무왕은 강수를 포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 우리 先王께서 唐에 청병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것은 비록 武功이라 하더라도 또한 文章의 도움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强首의 공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⁵³⁾

위에서 '무공'으로 평가되는 麗濟平定에 '문장'의 도움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열왕 때 당의 원병을 이끌어내는 데 강수의 공이 컸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당에 보낸 걸사표를 지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강수는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한 인물로서 많은 외교문서를 담당하였다. 문무왕은 위 언급에 앞서 그가 문장으로 중국과 고구려·백제에 뜻을 전달했음을 말하였다. 이는 그가 남다른 문장력으로 외교문서를 전담하였고, 그 역량이 군사 요청에서 극적으로 발휘되었음을 보여준다.

강수 열전에 따르면 그는 佛·儒 중에서 어느 것을 배우겠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儒를 선택하였다. 이후 그가 배운 책은 『孝經』·『曲禮』·『爾雅』·『文選』으로서 기초 교양과 문장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국 당시 儒의 본령은 문장에 있었던 것이다.⁵⁴⁾ 문장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53) 『三國史記』 권46, 列傳6, 强首, “我先王講兵於唐 以平麗濟者 雖曰武功 亦由文章之助焉 則强首之功 豈可忽也”

54) 强首의 사례는 「壬申誓記石」과 함께 중고기 신라의 유학 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사례는 문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경학 이해와 층위가 다르다. 그리고 경전 학습이 표방된 「임신서기석」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를 가정한 다짐을 말하고 있어 전쟁 종료 후 체제 안정기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윤경진,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文字』 22, 2019 참조.

외교문서이고 그 중에서도 청병 문서가 정점에 있다.

이러한 원리는 원광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 승려인 그의 행적에서 儒術을 겸비한 것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속고승전』에서는 이를 외교문서 전담으로 표현하였고, 『고본수이전』에서는 결사표를 통해 부각시켰다. 이것은 강수에 대한 평가에서 문무왕이 외교문서의 작성에 이어 대당 청병을 언급한 것과 같은 구도이다. 이에 비추어 원광의 결사표 사적이 강수의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IV. 乞師表 사적의 改作과 『三國史記』의 편집

『고본수이전』은 현전하지 않지만 남은 자료를 통해 그것이 설화집이며 그것에 실린 내용 또한 대부분 가공된 전승임을 짐작할 수 있다.⁵⁵⁾ 특히 개인 傳記의 경우 해당 인물의 사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과 가공, 부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이 史書에 채록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연대기 기사에 준하여 역사적 사실로 치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광의 결사표 사적은 神과의 대화 같은 허구와 함께 정리되어 있고 그 내용에도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 사적은 원광에 대한 후대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더하는 것은 전기 내용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계속 변형된다는 사실이다.⁵⁵⁾ 일연은 『삼국유사』 「圓光西學」 항목과 「寶壤梨

55) 『수이전』은 당 후기 傳奇文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주인공의 실제 행적을 밝히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이 지적된다(최연식, 「高麗時代 僧傳의 서술 양상 검토 : 『殊異傳』 海東高僧傳』 『三國遺事』의 阿道와 圓光전기 비교, 『韓國思想史學』 28, 2007).

木」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 ① 그런데 저 傳記들에는 모두 鵲岬璃目과 雲門寺의 일이 없으나 鄉人 金陟明이 잘못 민간의 설을 가지고 운문하여 『圓光法師傳』을 지으면서 함부로 雲門開山祖인 寶壤師의 사적을 적어 하나의 전기로 합쳤다. 뒤에 『海東僧傳』을 지은 자가 잘못을 이어 기록한 탓에 당시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가졌다.⁵⁷⁾

② 後人이 『新羅異傳』을 改作하면서 함부로 鵲塔璃目的 일을 圓光 전기 중에 실었고, 犬城의 일은 毗虛 전기에 실었으니 모두 잘못이다. 또 『海東僧傳』을 지은 자가 따라서 운문하여 寶壤은 전하는 것이 없고 후인들이 의혹을 가지게 했으니 誣妄이 얼마나 심한가.⁵⁸⁾

『삼국유사』에서 「보양이목」은 「원광서학」 바로 다음 항목이다. 위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원광의 전기에 보양의 사적이 잘못 들어간 것을 비판하고 있다. 실제 「보양이목」은 해당 사적이 보양의 것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논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위의 두 기사는 같은 내용으로, ②의 『신라이전』은 ①에서 언급한 『고본수이전』을 말하며,⁵⁹⁾ ②의 後人 또한 ①의 金陟明을 가리킨다.⁵⁹⁾

56) 『수이전』의 찬술과 전승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고된다.

金乾坤,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정신문화연구』 34, 1988; 郭丞勳,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震檀學報』 111, 2011.

57) 『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然彼諸傳記 皆無鵲岬璃目與雲門之事 而鄉人金陟明 謬以街巷之說 潤文作光師傳 濫記雲門開山祖寶壤師之事迹 合爲一傳 後撰海東僧傳者 承誤而錄之 故時人多惑之”

58) 『三國遺事』 권4, 義解, 寶壤梨木, “後人改作新羅異傳濫記鵲塔璃目之事于圓光傳中 系犬城事於毗虛傳 既謬矣 又作海東僧傳者 從而潤文 使寶壤無傳而疑誤後人 誣妄幾何”

59) 일연은 寶壤에 대해 “師之行狀 古傳不載”라고 했는데, 이 ‘古傳’도 『古本殊異

①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②에서는 간략히 밝힌 것이다. 『해동고승전』에 대한 비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신라의 『고본수이전』을 김척명이 改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연이 보양의 사적으로 간주한 일부 사항이 원광의 전기에 혼입되었음도 알 수 있다. 김척명의 저술은 ‘改作’ 또는 ‘潤文’이라고 한 것에서 내용과 문장의 수정 및 보충이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일연의 비판과 달리 현재 남아 있는 『해동고승전』에는 김척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阿道에 대한 고증 과정에서 朴寅亮의 『수이전』을 인용하였다. 찬자를 밝힌 것으로 보아 이 책이 김척명이 개작한 『수이전』과 같은 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김척명과 박인량의 『수이전』은 일단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다.⁶¹⁾

『해동고승전』은 박인량의 『수이전』만 언급했는데 일연은 『해동고승전』이 김척명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수이전』은 古本에서 김척명 개작본, 그리고 박인량 찬술본으로 전개된 것으로 종합된다.⁶²⁾ 해당 부분에서 박인량은 김척명의 오류를 그대로 수록하였고

傳』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60) 김진곤,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1988, 276쪽.

61) 현재 『수이전』에 대한 연구는 대개 『고본수이전』과 박인량의 『수이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 형태로 볼 때 김척명의 『수이전』도 실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김척명이 『고본수이전』을 바탕으로 승려와 관계된 일부를 보완하여 圓光과 毗盧의 개인 전기를 새로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김진곤,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1988, 276쪽; 곽승훈,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2011, 48쪽), 원광의 전기만 뽑아서 개작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개작된 『수이전』 중에서 일연이 「원광법사전」을 문제삼은 것일 뿐이다.

62) 박인량의 개작이 김척명의 개작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池浚模, 「『新羅殊異傳』 研究」, 『語文學』 35, 1976, 219~221쪽). 이는 각훈과 일연의 인용을 그대로 시간 차이로 본 것인데, 일연이 『해동고승전』을 보았음에도 김척명의 개작과 『해동고승전』을 바로 연결한 것을 보면, 김척명의 개작이 선행하였고 그 근간

다시 覺訓이 이를 수용한 것인데, 일연은 그 출발이 김척명의 글이라고 파악하고 비판한 것이다.⁶³⁾

이처럼 일연은 『수이전』의 전승과 개작 과정에서 당초 원광의 사적에 없던 鵲岬瑠目이 혼입된 것을 고증하였다. 그리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속고승전』과 『고본수이전』의 원광 사적을 ‘가감 없이’ 전재하고 이를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변형 내지 혼입은 원광의 다른 사적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왕의 찬술 명령에 원광이 답한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승려로서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대왕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 명을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로 명을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불법의 계율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언급은 일연이 인용한 『고본수이전』에는 없다. 『고본수이전』의 결사표는 “旁通儒術”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었을 뿐으로, 국가 의식을 표출한 원광의 발언과 충위를 달리한다. 반면 『해동고승전』에는 이 언급이 수록되었다. 『고본수이전』에 없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것은 보양 관련 사적이 들어간 것과 같은 양상이다.

그렇다면 원광의 언급은 『고본수이전』의 결사표 사적을 국가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개작 단계에서 추가된 내용으

이 『해동고승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3) 박인량 찬술본에 대해 『고본수이전』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으며 『해동고승전』 단계에서 윤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곽승동,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2011, 59~60쪽 및 65~66쪽). 그러나 일부 동일하게 전승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개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서 김척명 단계에서 개작된 것을 박인량이 윤문 수준에서 잔재하는 맥락도 생각할 수 있다. 『해동고승전』은 阿道 전기의 말미에서 “今按國史及殊異傳 分立二傳 諸好古者 請詳焉”이라 한 것에서 원전을 크게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해동고승전』에서 나타난 내용 변화는 대체로 김척명의 『수이전』 개작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 판단할 수 있다. 추정을 더한다면 해당 내용은 김척명의 개작본에서 침입된 것이 아닐까 한다.

박인량은 『古今錄』 10권도 찬술했는데, 『수이전』이 그 일부였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⁴⁾ 『고금록』은 그 명칭으로 볼 때 고금의 사적을 취합한 것으로, 여기에 『수이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고금록』은 하나의 체제로 구성된 저작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모은 형태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그의 저술은 적극적인 개작보다는 기존 자료를 취사하고 손질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원광의 사적 또한 김척명 단계에서 개작되었는데, 이것이 박인량의 『수이전』으로 이어지고, 다시 각훈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일연은 재야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본수이전』과 함께 김척명의 개작본을 입수하여 대조하였다. 그 결과로 보양의 사적이 원광의 사적으로 잘못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김척명과 각훈의 오류를 비판한 것이다.

『삼국사기』 또한 개작된 『수이전』을 통해 원광의 결사표 사적을 채록하면서 그의 발언도 실었다. 반면 당초 사적 형성의 본령이었던 儒術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였다. 이것은 『삼국사기』(혹은 그 저본이 된 개작본 『수이전』)가 결사표를 유술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식의 관점에서 주목한 결과이다. 그리고 찬술 배경이 된 고구려와 백제의 침구를 고구려의 침구로 수정함으로써 실재한 수의 고구려 원정 사적과 연결하였다.⁶⁵⁾

이와 비슷한 사례로 김유신이 임종 때 문무왕에게 올린 현의를 참고할

64) 광승훈,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2011, 54~55쪽.

65) 『해동고승전』은 고구려의 영토 침탈, 대수 청병 의도, 원광의 언급을 전재했으나 그에 이어지는 원정 실행, 혹은 원광의 유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삼국사기』가 나누어 편집한 것에서 원광과 직접 관련된 608년 기사만 채록한 결과로 보인다. '진평왕 30년'이라는 연기를 밝힌 것에서도 이것이 『삼국사기』 기사를 참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 있다. 김유신은 자신이 어진 군주의 신임을 받아[任之勿貳] 공업을 이루었음을 말하고, 아직은 太平이 아니니 君子를 가까이 하고 小人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의 헌의 중에는 “三韓爲一家”라는 표현이 나와 7세기 삼한일통의식을 보여주는 자료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任之勿貳(任賢勿貳)”는 『書經』에 나오는 구절로서 7세기 신라의 경학 이해 단계와 맞지 않고, 무장으로 활동한 김유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한 君子·小人의 변별 또한 유교정치이념의 표현이 거니와 특히 宋代 朋黨論이 제기된 후 보편화되었다. 이런 요소를 고려할 때 그의 언급은 유교정치이념이 보급된 고려시기에 구성된 것으로 파악된다.⁶⁶⁾

최근에는 그의 헌의가 魏徵의 遺表를 모방하여 만든 것임도 밝혀졌다.⁶⁷⁾ 太宗 칭호를 둘러싼 논변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무열왕은 당 태종에 비견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김유신은 위징에 비견되었다.⁶⁸⁾ 이를 매개로 위징의 사적을 통해 김유신을 수식하였던 것이다. 위징에 대한 인식은 『貞觀政要』가 도입된 이후에 일반화되었고, 그의 遺表는 『舊唐書』에 실려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구성된 김유신 헌의는 7세기 신라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원전 또한 고려에 들어와 생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개작된 『수이전』을 그 원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광의 결사표는 당초 그의 유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삼국사기』에 채록된 내용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忠의 이념을 강하게 드러내고

66)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234-238쪽.

67) 윤경진,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75, 2016, 69~70쪽.

68) 이 관계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三國遺事』 권1, 紀異, 太宗春秋公, “朕之聖考得賢臣魏徵李淳風等 協心同德 一統天下 故爲太宗皇帝 (중략) 新羅雖小國 得聖臣金庾信 一統三國 故封爲太宗”

있다. 유교정치이념이 투영된 김유신 헌의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광의 결사표 사적도 재해석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의 언급이 만들어진 것이다.⁶⁹⁾

이제 원광의 결사표 및 청병 기사에 대한 『삼국사기』의 편집이 가지는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사기』는 이 사적을 대수 청병으로 받아들이고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과 연결하였다. 이에 수 양제가 고구려 침공을 천명한 611년에 맞추어 청병 기사가 삽입되었다.

그리고 원광의 결사표 작성은 608년 기사로 나누어 정리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611년 기사의 본령은 고구려본기의 조서 반포에 조응하는 수 양제의 허락이며, 신라의 청병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도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병 행위는 원광의 결사표로 올라간다.

당초 하나의 기사로 구성된 것임에도 『삼국사기』에서 두 시점으로 분리한 것은 실제 있었던 백제의 청병 사적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왕은 607년 수에 표를 올려 고구려 원정을 청하였고⁷⁰⁾ 수의 고구려 원정이 가시화된 611년에는 사신을 보내 軍期를 청하였다.⁷¹⁾ 그리고 원정이 단행된 612년에는 실제 군대를 경계에 배치하였다.⁷²⁾ 원광의 결사표와 신라의 청병은 무왕의 행보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곧 실재한 백제의 청병 사적에 맞춤으로써 그 사실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69) 김유신 열전 내용 중 17세에 神人을 만나 비법을 전수받는 내용이나 임종에 앞서 그를 지키던 陰兵이 떠나는 이야기 등은 명백한 허구이다. 당초 열전의 저본이 된 『金庾信行錄』이 꾸며낸 이야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거니와 김유신과 관련된 전승이 다수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 미추왕과 김유신의 혼백이 대화를 나누는 驚仙寺 연기설화와 김유신이 문무왕과 함께 등장하는 萬波息笛 설화, 김유신이 唐軍을 독살했다는 『삼국유사』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행록』에 실린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고분수이전』 또는 개작본에서 채록된 것일 수도 있다.

70)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8년 3월

71)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12년 2월

72) 『三國史記』 권27, 百濟本紀5, 武王 13년

다만 결사표 찬술 시점이 608년으로서 1년의 시차가 있다. 당초 결사표 기사가 무왕의 사적에 맞춘 것이라면 동일하게 607년 기사로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편집 과정의 오류로 판단된다. 신라본기에는 607년 항목이 없다. 연대기 기사를 바탕으로 결사표 사적이 침입될 때 기존 607년 기사가 있었다면 그 뒤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사는 608년 기사의 바로 앞에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 연도의 준거가 될 607년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해당 연도의 기사로 분리되지 못하고 608년 기사로 포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월 표시가 없는 기사가 연도 서두에 들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대로 608년 초의 기사로 보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611년 수 양제의 허락 기사가 月이 없음에도 10월 기사 앞에 들어간 것은 이와 맥락이 다르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내용으로 간주되는 고구려본기 기사가 2월인 데 따른 것이다. 2월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해당 내용이 고구려본기 기사와 동일 원전에서 채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곧 다른 자료에서 채록되면서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行兵事在高句麗紀”라는 내용을 넣었는데, 行兵을 유도한 황제의 조서가 고구려본기에 2월 기사로 되어 있으므로 신라본기에서도 10월 기사 앞에 넣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광의 결사표는 본래 해당 청병을 배경으로 하여 원광의 유술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강수의 사적도 참고된 듯하다. 그런데 그 원전인 『고본수이전』이 여러 차례 개작과 윤문을 거치면서 이 사적은 원광의 국가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되었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불법보다 국가를 앞세운 언급이 침입되었다.

신라의 청병은 『수서』에 보이지 않으며 결사표 기사 또한 내용적으로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서 이 기사를 채록한 것은 그것이 護

國 이념 내지 유교에서 강조하는 忠이 불교의 계율에 우선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김유신 헌의에 투영된 유교정치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신라의 전쟁에 ‘고구려 평정’의 명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듯하다. 이 사적을 수용하면 신라의 ‘고구려 평정’은 당을 끌어들이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 된다. 수의 고구려 침공 자체가 신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으로써 백제 외에 고구려에 대해서도 자신이 주도하는 ‘평정’ 과정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라의 전쟁은 백제와 고구려를 아우르는 ‘통일’ 과정으로 평가할 명분이 확보되는 바, 『삼국사기』는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여 해당 기사를 적극 채용하였다.

V. 맺음말

이상에서는 圓光의 乞師表 사적이 후대에 가공된 것이며, 신라의 對隋 請兵 또한 실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608년 원광의 걸사표 찬술 기사와 611년 신라의 청병에 대한 수 양제의 허락 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隋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백제의 청병 사적이 모두 실린 것과 대비된다. 수 양제가 신라의 요청을 수용하여 원정을 단행했다는 것은 백제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내용과 상충된다. 해당 기사에서 전쟁 내용을 “行兵事在高句麗紀”라고 처리한 것은 원전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사적이 후대에 가공된 것임을 시사한다.

걸사표 기사에는 석연치 않은 내용이 많다. 무엇보다 당시 고구려와의

관계가 수에 청병할 정도로 신라에게 위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기 고구려는 신라의 북한산성 등을 공격했지만, 이는 국경 분쟁 수준이어서 신라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다. 고구려는 한강 이북의 고토를 수복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중국 왕조를 이용하려는 백제와도 계속 충돌하였다. 오히려 신라는 이러한 여건을 이용하여 州를 전진 배치하는 등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621년 당 고조는 삼국의 갈등 해소를 도모하며 신라 사신에게 갈등의 연원을 물었는데, 사신은 백제의 고구려 원정 때 신라가 고구려를 지원한 것과 백제 성왕을 죽인 것을 적시하였다. 반면 신라와 고구려의 갈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앞서 양국 사이에 청병을 유도할 만한 갈등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신라가 대야성 함락 후 보복을 위해 고구려에 청병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삼국사기』의 결사표 기사는 月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2월 기사 앞에 편집되어 있다. 611년 허락 기사 역시 월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10월 기사 앞에 정리되었다. 이는 두 기사가 내용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당초 하나의 사적을 구성했으며, 연대기가 아닌 별도의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 또한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는다.

『삼국유사』의 「圓光西學」 항목에는 『(唐)續高僧傳』의 원광 전기와 『古本殊異傳』에 실린 「원광법사전」이 인용되었는데, 후자에 결사표와 청병 사적이 보인다. 일연은 唐·鄉의 전기를 가감 없이 모두 신는다고 밝히고 있어 항목 전체를 전재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린 원광의 행적은 귀국 후의 大乘經典 강론과 결사표 찬술(황제의 친정 포함)인데, 후자는 그의 儒術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된 것이며, 『속고승전』에서 말한 “箋表啓書 往復國命”을 전담했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청병 배경으로 ‘여제연화’를 깔고 있는 점에서 이것이 당의 고구려 원정을 배경으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

연은 '隋'를 '唐'으로 고쳐 이해하였다.

원광의 결사표 사적이 그의 유술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은 强首의 사례를 통해 유추된다. 강수는 무열왕 때 문장가로서 외교문서를 담당하였고, 문무왕은 당에 청병하여 麗濟를 평정하는 데 그의 문장이 큰 역할을 했음을 공인하였다. 이는 당시 유학 이해의 본령이 문장에 있고, 그것이 외교문서, 특히 청병에서 극명하게 구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원광의 결사표는 강수의 사례를 모티브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광의 전기가 실린 『고본수이전』은 설화집이며 그것에 실린 내용 또한 대부분 가공된 전승이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원광의 사적 또한 사실보다 그에 대한 후대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수이전』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계속 개작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삼국유사』의 「보양이목」 항목에는 金陟明이 『新羅異傳(고본수이전)』을 개작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개작' 또는 '윤문'이라는 지적에서 내용과 문장의 수정 및 보충이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동고승전』에서는 阿道에 대한 고증 과정에서 朴寅亮의 『수이전』을 언급했는데, 일연은 『해동고승전』이 김척명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통해 『고본수이전』에 이어 김척명과 박인량의 『수이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기사 중 원광이 진평왕의 명에 “대왕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 명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본수이전』에는 없으며 개작 과정에서 첨입된 것이다. 이는 결사표 찬술을 국가의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魏徵의 遺表를 모델로 구성하고 유교정치이념을 투영한 김유신 현의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역시 고려에서 개작된 『수이전』에서 채록된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는 결사표 사적을 그대로 대수 청병으로 받아들이고 양제의 고구려 침공과 연결하였다. 이에 양제가 원정을 천명한 611년에 신라의

청병과 황제의 허락 기사가 삽입되었다. 원광의 결사표가 608년 기사로 들어간 것은 607년 백제의 청병에 맞춘 것이다. 백제의 청병과 양제의 원정이 하나의 맥락이므로 그 구성에 맞추어 결사표 사적을 편집함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 607년 기사로 편집될 것이었으나 이 해 기사가 없었기 때문에 608년 기사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월을 알 수 없음에도 608년 첫 기사로 편집되었다. 다만 611년 기사는 그에 조응하는 고구려본기 기사가 2월인 것에 맞춘 것이다.

이상에서 원광의 결사표는 대당 청병을 배경으로 원광의 유술을 보여주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수이전』이 고려에서 개작되면서 국가주의를 표방한 언급도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사적을 근거로 신라의 대수 군사외교를 말하거나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평정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로부터 연결되는 대당 외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과제로 삼는다.

(2021.07.03. 투고 / 2021.07.14. 심사완료 / 2021.07.23. 게재확정)

[Abstract]

**Reexamination of Shilla's Military Diplomacy with the
Chinese Su(隋) dynasty, in the early 7th century**

– Focusing on verifying the legitimacy of the Weon'gwang(圓光)

Geolsa-pyo(乞師表) –

Yoon, Kyeong Jin

Confirmed in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the story of “Weon'gwang(圓光)'s Geolsa-pyo(乞師表, the Appeal for a Military Relief)” is actually a false one, fabricated during later periods, and that Shilla never asked the Chinese Su(隋) dynasty for military troops and aid. This new confirmation requires us to reexamine the Shilla dynasty's history of military diplomacy with the Chinese dynasties in the early 7th century, which has been believed to have initiated with Shilla's said ask for a Chinese military relief.

The supposed fact of Shilla asking the Su dynasty to dispatch military troops cannot be found from Suseo(隋書, The Official History of the Su Dynasty),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Shilla at the time, it does not seem likely that Shilla was in need of a foreign military aid. The story of Weon'gwang's Geolsa-pyo appeal was apparently modeled after the story of Gang Su(強首) who had earlier asked troops from the Chinese Dang(唐) dynasty, and set during his lifetime, in an effort to emphasize Weon'gwang's expertise in Confucianism.

The original text, Shilla's Su'i-jeon(殊異傳), was rewritten(or supplemented) by Kim Cheok-myeong(金陟明) and Park In-ryang(朴寅亮) during the Goryeo period, and in the process Weon'gwang's "response" -of a nature prioritizing the state's welfare than Buddhist teachings- was newly created, and added to the original text. Then, based on this fabricated story, Samguk Sagi documented Shilla's supposed request for troops as well as Su Emperor Yangje's authorization of dispatching them, in the entries(years) of 608 and 611 respectively, of which the former seems to be an error of 607.

□ Keyword

Weon'gwang(圓光), Geolsa-pyo(乞師表), Su'i-jeon(殊異傳), Kim Cheok-myeong(金陟明), Park In-ryang(朴寅亮), Gang Su(強首)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隋書』 『舊唐書』 『宣祖修正實錄』 『(唐)續高僧傳』

2. 연구논문

김종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 660년 이전 對高句麗戰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24, 2004.

郭丞勳,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震檀學報』 111, 2011.

金乾坤,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 『정신문화연구』 34, 1988.

김복순, 「원광법사의 행적에 관한 종합적 고찰」, 『新羅文化』 28, 2006.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외외교 :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박윤선, 「무왕대 전반기 삼국의 각축과 백제의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53, 2009.

박윤선, 「백제와 중국왕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百濟文化』 45, 2011.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百濟學報』 13, 2015.

박찬우, 「640년대 전반 '麗濟連和'의 실상과 唐의 백제 인식」, 『史學研究』 141, 2021.

방용철, 「麗·濟 連和說의 재검토」, 『民族文化論叢』 62, 2016.

여효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 대수관계(對隋關係)를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46, 2002.

- 윤경진, 「新羅 太宗(武烈王) 諡號 논변에 대한 자료적 검토 : 原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歷史와實學』 51, 2013.
- 윤경진, 「新羅 中代 太宗(武烈王) 諡號의 追上과 재해석」, 『韓國史學報』 53, 2013.
- 윤경진,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 : 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75, 2016.
- 윤경진, 「『壬申誓記石』의 제작 시기와 신라 중고기의 儒學 이해에 대한 재검토」, 『木簡과文字』 22, 2019.
- 윤경진,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1, 2020.
- 윤경진, 「4세기 후반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과 영토의식 : 치양성(雉壤城)·패수(溟水)에 대한 새로운 비정을 바탕으로」, 『韓國史研究』 193, 2021.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경계』 110, 2019.
- 이문기, 「圓光의 生涯 復原 試論」,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33, 2012.
- 李昊榮, 「麗·濟連和說의 檢討」, 『慶熙史學』 9·10합, 1982 ;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書景文化社, 2001.
- 정동준, 「7세기 전반 백제의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46, 2002.
- 池浚模, 「『新羅殊異傳』 研究」, 『語文學』 35, 1976.
- 崔鉛植, 「圓光의 생애와 사상 : 『三國遺事』 「圓光傳」의 분석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 최연식, 「高麗時代 僧傳의 서술 양상 검토 : 『殊異傳』 海東高僧傳』 『三國遺事』의 阿道와 圓光전기 비교」, 『韓國思想史學』 28, 2007.
- 최호원, 「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7세기 전반까지 양국의 상호 인식」, 『史叢』 91, 2017.